

# KDB생명, 종신보험 이율 대폭 상향...매각 준비 하나

✎ 임성민 기자 | ☎ 승인 2023.04.03 06:51

평균 2.25%에서 최대 3.5%까지 조정  
사측 “금리 올라, 경쟁력 강화 이유”  
건전성·미래이익 챙겨 몸값 띄울 수도

종신보험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음  
↑  
시장금리↑ 이자율↑ 보험료↓ 시장경쟁력↑  
↓  
저축성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음

KDB생명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5종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대폭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인데, 업계에서는 매각을 앞두고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여 안정적인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 최대 3.5%까지...예정이율 크게 올려

보험금에서  
KDB상품을 은행이 판매대행  
전화/인터넷  
→ 각각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이 다름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KDB버팀목플러스, KDB버팀목플러스간편, 버팀목으로키워주는, 우리가바라던(간편), 행복을지켜주는유니버셜 등 5종의 종신보험의 이율을 대폭 상향했다.

버팀목플러스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기존 2.25%에서 10년 이내 3.5%, 초과 시 2.0%가 적용된다. 납입기간은 11·12년납이 추가됐고, 가입 가능한 나이는 55세에서 65세로 확대했다.

버팀목플러스간편종신보험은 예정이율과 납입기간이 버팀목플러스종신보험과 동일하고, 가입나이만 55세에서 63세로 확대한 점이 다르다.

(=저축이율, 환급이율, ...)

버팀목으로키워주는종신보험도 예정이율을 동일하게 올렸다.

우리가바라던(간편)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2.25%에서 2.7%로 0.5%포인트 높였고, 행복을지켜주는유니버셜종신보험은 15년 이내 2.5%에서 3.25%로, 초과 시에는 2.0%로 변동이 없다.

이 외에도 내맘대로암보험과 버팀목치매보장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75%로 높였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예정이율을 올린 것”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예정이율이 올랐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어 상품 경쟁력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DB생명의 이번 예정이율 조정 폭인 1.25% 수준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 조정은 한 번에 0.25~0.5%포인트 가량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최대 1.25%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으로 KDB생명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생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특별계정인 암 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2.8%의 예정이율을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고, 한화생명은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3.0%를 적용한다.

교보생명은 이달 새롭게 출시한 상품에 최고 3.5%를 적용하고, 신한라이프는 3.25%, 농협생명은 지난달 기준 2.45%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동양생명도 1월 중으로 예정이율을 조정, 3.5%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 롯데손보 사례...매각 염두한 행보

연금 : 인시각x  
계좌자본란

일각에서는 KDB생명이 다섯 번째 준비를 앞두고 건전성과 미래이익을 확보해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신보험은 생보업계 주력 상품으로 CSM이 높게 평가된다. CSM이 높을수록 장래 이익은 커지고, 건전성도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앞선 사례로 대표적인 곳이 롯데손해보험이다. 롯데손보는 2025년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CSM이 높은 장기인보험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수익성이 없는 자동차보험은 축소하고, 대면영업이 필수인 장기인보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전속설계사 조직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5월 콜옵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자본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저축성보험이 유리하기 때문에 매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전속 조직이 약한 경우 상품을 비교 판매해야 하는 GA채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율을 크게 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KDB생명은 지난달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임 대표는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강조했다.



KDB생명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5종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대폭 인상했다.(사진 제공 =KDB생명)



**임성민 기자** cjswo003@naver.com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